

#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 도입하고 한강 다리에 구조용 계단 설치를”

**‘상상대로 서울’ 민원 접수**  
“13세 미만 상해보험 적용 안돼  
유아용 안장은 도입 불가” 답변  
“교량 기초에 사다리 설치 힘들고  
유속에 의한 파손 등 유지 어려워”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민들이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 도입, 한강다리에 구조용 사다리 설치, 차선 시인성 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유아용 안장이 장착된 따릉이를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전도 씨는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가족이 다 함께 따릉이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아직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따릉이에 유아용 안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특정 수요 반영시 재정 소요 증가 ▲대여소 배치·정비 등 관리상 문제 야기 ▲안전사고 발생시 만 13세 미만 이용자는 상해보험 적용 불가를 이유로 따릉이에 ‘유아용 자전거 안장’ 도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한강다리 밑에 구조용 사다리를 설치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시민을 구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황모 씨는 “가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실수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후회로 다시 삶을 갈구하게 될 때 잡고 오를 수 있는 곳 중 하나

가 한강다리 기둥들이다”며 “이곳에 수영장 사다리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수월할 것 같다”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기존의 교량 기초에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설치를 하더라도 하천 유속에 의해 파손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 한강다리 아래에 사다리 혹은 계단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 교량안전과는 “한강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 중이다”며 “또 인공지능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투신 시도자가 있는 경우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경찰이 동시 출동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천시 도로의 차선 시인성이 떨어진다든 지적도 제기됐다. 민원인은 “서

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다른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말을 한다”면서 “차선이 안 보이는 도로는 감으로 운전해야 할 정도이다”며 차선 개선을 주문했다.

시 도로관리과는 “야간 및 우천시를 고려해 2021년부터 기존 차선보다 시인성이 향상된 고성능 차선도색(상온경화형 도료+고굴절 유리알)을 도입했다”며 “다만, 폭우로 인해 도로 위에 수막이 형성되면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져 차선에 표지병을 병행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천시에도 시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선명한 서울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60억 투입

학력 보완·문화 등 6개분야 지원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시설 지원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기관에 학력 보완, 문화,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성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도내 23개소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난타 공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시는 도내 군포, 양평 등 18개 시군에 조성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은 화성, 안산 등 11개 시가 선정돼 장애인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 평생교육과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오늘 개통

교육부, 기존시스템 통합·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맞춤 도서추천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23일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돼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 독서활동 이력을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라며 “아울러 상담센터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hj@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서울시 “출산휴가 가세요”

‘전국 최초’ 총 240만원 90일 보장  
남성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지원금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낙후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더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이 지원된다.

다태아임산부는 단태아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해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된 22일 이후

# 서울시, 내달 1~6일 ‘서울페스타 2024’ 행사

봄의 절정인 5월, 서울의 멋과 맛과 흥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온다.

서울시는 내달 1~6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축제 주제는 ‘인조이 올 댓 서울(Enjoy All That Seoul)’이다. 먼저 서울광장은 3일간 다양한 ‘파티존’으로 꾸며진다. 다음달 1일 ‘서울페스타 2024 개막파티’를 시작으로, 5월 2~3일에는 서울의 문화·공연 등을 선보이는 ‘블라썸파티’와 뷰티·댄스 실력을 뽐낼 수 있는 ‘K-스타 챌린지’가 열린다.

광화문광장은 거대한 놀이 공간인 ‘플레이그라운드존’으로 바뀐다. 축제 기간 서울의 문화, 패션, 뷰티, 음식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스타일로드’가 상시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7 | 해질 / 19:15

4월 23일(화)  
음력 : 3월 15일

수도권 날씨  
13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9/22, 동두천 10/23, 가평 9/21, 양평 10/23, 용인 13/23, 평택 11/23, 수원 13/23, 인천 13/22, 파주 9/22, 백령도 11/17, 서울 13/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뉴스비지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곰팡이’ 하얼빈 맥주에 韓 소비자도 불안  
▲“美, 中 금융기관 제재 검토…블링컨 방중 기간 경고할 듯” /사진 뉴시스

▲日 방위성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물체 발사”  
▲이라크 모술에서 시리아내 미군기지로 로켓 발사, 이라크군이 발사차량 발견



▲美 유권자, 바이든-트럼프 재대결에 시큰둥…“관심 있다” 20년만에 최저  
▲中 남부, 폭우로 “100년만의 대홍수” 우려…비상대응 강화 /사진 뉴시스